



2020년 11월 22일(제1009호)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성시 주권)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가장 작은 이”

오늘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대림 제1주일부터는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이들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올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얼마나 도우며 살았는지를 말이죠. 가장 작은 이들을 향한 ‘나눔’은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실천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라고 말씀하시며 가장 작은 이가 바로 ‘나’라고 말씀해주시지만, 남을 돕는다는 건 그래도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남’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죽을 것 같은 고통보다 침대에 부딪힌 내 발가락이 더 신경 쓰이고 아픈 게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가 ‘남’을 도우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떤 ‘공감’이 필요한지 알려주는 한 교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교수님은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재소자들과 친구처럼 지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 습니다. 진심으로 다가가려 했지만 늘 변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살인죄로 오랜 시간 감옥에 있었지만, 그동안 아무도 면회를 오지 않았던 재소자에게 면회 신청이 들어오는 일이 생깁니다. 모든 재소자들은 ‘도대체 누굴까?’ 하며 궁금해했고 그 가 돌아오자 ‘누가 면회 온 거냐?’라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재소자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재소자의 어머니는 그가 어렸을 때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을 피해 도망갔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이미 자식이 있는 사람과 재혼을 하였고, 그 아이를 정성껏 길렀는데, 바로 그 아이가 어른이 돼서 면회를 온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재소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나에게 와서 나를 잘 길러주셨기 때문에 난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당신 어머니가 나에게 오지 않았다면 내가 당신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순간 교수님은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이렇게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거였지, 만일 저 사람과 같은 상황이었으면 내가 무기수였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야 재소자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었고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가장 작은 이들은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바로 나 자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그가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 동정이나 불쌍하게 봐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해와 존중의 대상이라는 것, 그게 진실한 공감의 시작입니다. 이 공감을 통해 사랑의 나눔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준(토마스 이퀴나스) 신부
해성대(5공비전) 성당 주임

- 제 1 특 시** 예제 34,11-12.15-17
- 회 답 송**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 제 2 특 시** 1코린 15,20-26.28
- 복음 본궤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리라! ◎
- 복 음** 마태 25,31-46
- 영 성 제 송**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황일광 시몬



성인명: **황일광 시몬** (黃日光 Simon)

신분: **친민, 순교자**

활동연도: **1757-1802년**

충청도 홍주에서 태어난 황일광(黃日光) 시몬은 천한 신분 출신으로 어린 시절을 아주 어렵게 생활하였다. 그러나 하느님의 섭리는 그에게 이러한 생활을 보상해 주시고자 놀랄 만한 지능과 열렬한 마음과 매우 명랑하고 솔직한 성격을 주셨다.

황 시몬은 1792년 무렵 홍산 땅으로 이주하여 살던 중에 우연히 이존창 루도비코 곤자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가 교리를 배우게 되었다. 그는 천주교 신앙을 접하자마자 이를 기꺼이 받아들였고,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동생 황차돌과 함께 고향을 떠나 멀리 경상도 땅으로 가서 살았다. 교우들은 황 시몬의 사회적 신분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를 애덕으로 감싸 주었다. 양반집에서도 다른 교우들과 똑같이 받아들여졌다. 그러자 그는 농담조로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였다. “나의 이러한 신분에도 사람들이 너무나 점잖게 대해 주니, 천당은 이 세상에 하나가 있고, 후세에 하나가 있음이 분명하다.”

1800년 2월 황 시몬은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 정약중 아우구스티노 회장의 이웃으로 이주하였다. 그리고 황사영 알렉시오, 김한빈 베드로 등 여러 교우들과 자주 교류하였다. 이제 그의 열심은 날로 더해져 모든 이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이르렀다. 그 뒤, 정 아우구스티노 회장이 한양으로 이주하자, 황 시몬도 아우와 함께 한양 정동으로 이주하여 뿔나무를 해다 팔면서 생계를 꾸려나갔다. 그리고 자신의 힘이 닿는 데까지 교회 일을 도왔다. 또한 주문모 야고보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교우들과 함께 미사에 참여하는 기쁨도 얻게 되었다.

1801년에 신유박해가 일어난 뒤, 황 시몬은 뿔나무를 하러 나갔다가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옥으로 끌려갔다. 그는 포도청과 형조에서 여러 차례 문초와 형벌을 받았지만, 아무도 밀고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굳건하게 참아냈을 뿐만 아니라, 재판관의 추상같은 호령에도 굴하지 않고 천주교를 ‘성스러운 종교’라고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저는 천주교 신앙을 올바른 길로 생각하여 깊이 빠졌습니다. 이제 비록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어찌 배교하여 천주교 신앙을 저버리겠습니까? 빨리 죽기만을 원할 따름입니다.”

그 결과, 황 시몬은 다리 하나가 부러지고 으스러질 정도로 잔인하게 매질을 당해야만 하였다. 그런 다음 동료들과 함께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조정에서는 이와 함께 ‘황일광을 고향으로 보내 참수함으로써, 그곳 백성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라.’는 명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황일광 시몬은 고향인 홍주로 이송되었다. 이때 그는 걸을 수조차 없어 들것에 실려 가면서도 본래의 명랑한 성격을 그대로 드러냈다. 또 아내와 아들이 최후의 순간까지 그를 도우려고 따라오자, 그들 때문에 어떤 유혹을 당할까 두려워 절대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였다. 황일광 시몬은 홍주에 도착하는 곧바로 참수형을 받고 순교하였는데, 이때가 1802년 1월 30일(음력 1801년 12월 27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45세였다.

복 음 록 상

- 베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보호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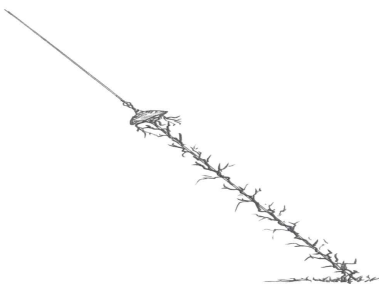
나를 지켜줄
보호막이 필요할
때가 있다.

무심코 느낄 때가 있다.

고마웁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있음을

그렇게
넘게서도
사소한 것들 안에서
나를...



상화이야기

최후의 심판



지난주에 살펴본 바르톨로메오 성인 옆에는 천상의 열쇠를 들고 있는 성 베드로가 있고, 그 옆에는 십계를 들고 있는 모세가, 그리고 하단에는 여러 순교자들과 성인들이 보인다.

예수님과 성모님 아래에는 천사들이 잠들어있는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 천상의 나팔을 불고 있는데, 어쩌나 세계 부는지 불이 터질 지경이다.



우리가 보는 화면 왼쪽 하단에는 깊고 오랜 잠에서 깨어난 축 늘어진 영혼들이 건장한 천사들에 의해 하늘로 끌어올려지고 있으며, 그와는 반대로 오른쪽에는 악인들의 영혼을 가차 없이 지옥으로 내려치는 천사들이 보인다. 목주에 의지해 천상으로 올려짐을 받는 영혼도 있다.



특히 지옥의 강을 건너는 배에 가득 찬 죄인들을 노를 들어 내려치며 지옥으로 내치는 모습 또한 볼 수 있다.
 <다음 주에 계속>



김은혜 (엘리시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 회원들을 위한 미사 - 그리스도왕 대축일: 국방부 김창중 신부

◆ 교구장 동정

- 제주교구 제5대 교구장 착좌식
- 때·곳: 11월 22일(주일) 14:00, 이시돌 삼위일체 대성당

- 국장회의

때·곳: 11월 24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군중의 시김' 인내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빌사후를 따라" -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요한 21,19)